



두엄누리회보

www.duem.or.kr

제20호 2005년1월29일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02/522-4260~1 FAX:02/522-4383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한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마음은 항상 착잡하고 새롭다.

특히 올해 들어서서 우리 분야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각오를 새롭게 한다.

올해는 닭의 해이다.

닭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느낌을 주는 동물이다. 부산물 비료 중 제일먼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 계분이며 지금도 비료성분이 다른 물질에 비해 비교적 높아 발효조건을 맞추는데 우선적으로 찾는 비료 자재이다. 또한 다른 가축과는 달리 함수율도 낮아 다루기 편리한 자재이기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친근한 느낌을 주는 가축이다.

닭은 어둠을 쫓고 새벽을 불러들이는 전



령사 라고 한다.

심지어 악귀를 물리치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있다. 누구는 자신을 닭으로 자칭해 민주주의에 순교자임을 비유하기도 했다.

남들은 이렇게 닭을 고상하고 멋진 일에 비유하건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털끝부터

닭발까지 버릴것 하나 없이 먹고 만들고 이용하는 많은 것 중에 닭의 배설물을 가지고 친근감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와 친근한 닭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부디 좋은 일만 계속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 들어 우리 주변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비료에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악취 방지법이 시행된다. 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 부산물이 퇴비의 원료로 많이 들어와 시장에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농협이 시행하는 보조비료 사업 운용지침이 많이 바뀌었다. 물론 이미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하였으나 다시 한번 숙지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규지정: 일정자격을 갖춘업체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로 년2회 지정 하던 것을 하반기 1회로 변경 하였고 기 지정운용중인 업체는 매 2년마다 신규지정에 준하여 재 지정.

◇지정기준:-. 생산실적 1,000톤이상 또는 매출액 1억이상에서 세무사가 확인하는 매출실적 1억이상으로 변경

- . 2년에 한번이상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 주관 부산물비료 생산관련 교육 수료 의무화

- . 원, 부자재 수불부와 생산 및 출하일지 작성이 추가

◇의무사항: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OEM)은 금지되고

- 업체별 생산능력을 조사하여 농협중앙회로 보고하고 만약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납품하였을시는 1년간 지정해지
- 추천기관및 농협중앙회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품질 검사에 대하여 불응 (시료미발체 등)시는 1회에 1년 2회에 2년(정당한 사유가 있을시는 제외)지정해지 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변경 내지는 신설된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잘못 대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도시 쓰레기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는 난리 법석이 났다.

모든 방송매체들도 이렇다 쓰레기 대란이 오는것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도 높다.

서울시내 한 구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이후 그 량이 2배이상 늘어났다고 이야기 한다. 그동안 말로만 분리수거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갑자기 늘어난 쓰레기양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것은 쓰레기 전문 처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각 구청은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재활용신고만 되어있는 업체라면 아무데고 갖다 주기 바쁘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의 처리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별→과쇄→선별→탈수→가열→사료

→케익→비료

비료 생산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이러한 형태로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들은 도심

주변에 자리 하고 있고 처리 방식은 퇴비화 보다는 사료화 재활용시설로 신고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실제 처리는 퇴비화가 훨씬 많으면서도 신고된 시설은 사료화가 많은 이유는 퇴비화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나 사료화는 가열처리만 하면 되는 단순 공정으로 최종처리가 끝나는 까닭으로 생각된다. 처리업체에서 사료화로 최종처리 하는 경우가 축 사료로서 필요한 영양소를 별도 첨가하여 조제하지 않으면 유상공급은 어렵고 무상으로 농장까지 갖다주어야한다.

그나마 고정적인 소비가 이루어 지지 않아 대다수 탈수 케익 상태로 퇴비 공장에 비료자재로 공급해줌으로 최종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처리비는 보통 도착가격으로 톤당 2만 5천원가량을 계산한다.

우리 퇴비공장에서는 이러한 처리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케익상태가 함수율이 70%가 넘고 질소원이 낮아 음식물 쓰레기만으로는 퇴비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축분, 그 중에서도 질소 성분이 많은 계분 등을 혼합하여야 하며 수분조정을 위해 톱밥 등 부자재가 많이 필요하여 퇴비 생산원가를 낮추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홍보 부족과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과다하게 섞은 불량퇴비의 유통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퇴비는 농가에서 선호도가 떨어져 퇴비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잘못 했다가는 판매부진으로 이어져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비료관리법에는 사용원료명이나 원료배합비율을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면서도 표기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상당수 있어 업체 간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처리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부산물비료의 주재료는 지금까지는 축산분뇨가 주 원료였으나 올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축산분뇨 못지않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을 감안하면 축분 발생량만으로도 전 농지에 질소 과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까지 가세하여 비료로서 만들어진다면 이 물질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지에 투입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농지에 투입된 이후 토양이 이 물질들을 분해시키기 위한 토양의 부하량을 줄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 한것 처럼 음식물쓰레기는 그것만으로는 퇴비화가 불가능하다. 특히 염분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보서는 25%이상 혼합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축산분뇨는 축산농가가 해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파쇄기 놓고 탈수기 놓은 음식물 쓰레기 전문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유기성오니의 퇴비화 처리는 각 부처마다 기준이 다른 퇴비가 아니라 토양에 들어간 이후에도 책임 질 수 있는 올바른 퇴비비료로 재생산 될 때 비로서 처리가 끝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매립이나 소각과는 달리 퇴비화는 축산농가에서 떠나주면 축분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쓰레기 집하장에서 떠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퇴비 제조와 판매까지도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썼느냐만 따졌을 뿐 퇴비의 성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부터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 지침에 따라 유기축산에 의해 배출된 배설물이 아닌 공장형 축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원료로한 퇴비로 쓰면 유기농산물로 인증 받지 못하도록 되었다.

공장형 축분은 일반농산물로 만든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해 좁은 축사에서 소나 돼지, 닭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축산분뇨이다.

코덱스와 정부는 그동안 공장형 축분이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등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수의약품에 오염됐을 뿐 아니라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이 가축 체내에 쌓일 위험이 크다며 사용 제한을 권장했다.

이로 인해 인증 유기농산물 외에도 친환경농업 전체가 일반 포장퇴비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유기축산농가가 있어 그 분뇨를 사용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또 공장형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를 만들어도 그것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막연했었다.

별도에 유기퇴비나 친환경퇴비라는 명칭으로 부산물 비료에 비중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해 보기도 하였으나 공정규격 설정과 그에 따른 품질관리 등 후속 조치의 어려움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현 비료 관리법으로는 원자재표시방법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재배농가나 인증단체를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길 밖에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내 주요

**친환경 농자재
활용 퇴비**

채소, 과일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이 Codex의 채소, 과일류의 안전생산 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 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민간단체 위주의 농산물 인증제도 외에 정부 주도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시 생산이력사항을 기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용하는 비료 및 농약 등 자재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목별 검정을 하여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퇴비도 이 검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에 쓸수 있는 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검정증명서는 82개 항목의 잔유농약 성분을 검사하여 표기하고 있다. 각 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05농산업 포럼안내

한국 농어민신문사에서는 농산업계의 정책적 육성과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농산업포럼을 개최하여왔다. 올해도 “한국농업의 회생과 농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회 농산업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해마다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받은 모임이었다.

이번 일정을 보면 축사 및 특별강연으로 신임 박홍수 농림부 장관. 초청강연으로는 이정환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장과 김영운 통일연구원 북한경제 연구센터 실장의 연설이 있다. 주제 발표는 김영만 식량정책국장 및 전인석 농협중앙회 상무의 발표가 있고 특히 이번에는 지자체(8개도) 농기자재 지원 사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중앙정부 지원사업 외에 각 지자체 보조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한꺼번에 들을수있는 좋은 기회이다. 매번 참석 할때마다 우리 분야에 관해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에는 후원단체로 참여할 계획이다. 되도록이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실상이나 정책 지원 등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으면 좋겠다. 중식이 제공되며 일시는 2005년 2월 23일(수)10:00 장소는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 A홀에서 개최한다.

협회소식

☞: 지난 연말 농정시책중 각 분야에서 성실히 일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경북 의성서부영농조합 이 총원 사장님을 대상으로 추천하여 농림부 장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초에 농협계약에 필요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단체가입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료 통보시 회비 및 수수료를 함께 통지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